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2년 11월 4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상 수 도 사업본부	담 당 자	• 재무관리팀장 정연화 ☎ 720-2051 • 담당자 김상수 ☎ 720-205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상수도 통합 자재관리센터’ 24년 개관 목표  
 본격 추진....자재 관리 효율 높인다!**  
**- 11.7 상수도 통합 자재관리센터 건립공사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인천시가 상수도 자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상수도 통합 자재관리센터’의 2024년 개관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상수도사업본부 6개 사업소에서 분산 관리 하던 자재를 통합관리해 예산 절감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상수도 통합 자재관리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오는 7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상수도 통합 자재관리센터는 남동구 백범로 62(구 남동·수산정수장 관사부지 활용) 대지에 건축비 등 약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1층 연면적 2,000㎡이상의 대형자재창고와, 사무동 및 기타 부속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1996년 시(市) 감사와 자재납품 업체관련 민원사항 등으로 자재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1999년부터 3차

례에 걸친 통합자재관리팀의 신설·폐지의 반복과 잦은 인사이동 및 적수사태 등으로 사업추진이 표류 중이었다.

상수도 자재관리는 상수도 산하 6개 수도사업소별로 운영 중으로 보유창고가 협소하고 운영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단순 자재 입·출고기능만 있었다.

잔여자재 미활용에 따른 불필요한 재고량 증가로 예산이 낭비되고, 관리운영의 중복 등으로 인력낭비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통합 자재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올 초부터 부지확보를 위한 국·시유지현장조사와 타시도 운영체계 견학을 통해 지난 4월 「통합자재관리 운영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8월에는 「통합 자재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하반기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상수도 통합 자재관리센터』구축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용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시 상수도사업 새로운 100년을 준비, 선진화된 관리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모범적인 인천의 상수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임> 상수도 사업본부 전경 사진

